

사순 제3주일

제1독서 : 출애20,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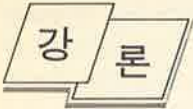
제2독서 : 1고린 1, 22-25

복 음 : 요한2, 13-25

순정이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요한 2,17).



다시 생각해보는 사순절의 의미



한병헌 신부 / 여산 천주교회

지금 교회는 가장 큰 은총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사순시기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 우리에게 주시어...”라는 성가에 젖어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은총의 시기를 단순한 감상의 차원에서 지나쳐버릴 위험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왜 하필이면 우리의 주님께서 수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셨음을 묵상하는 이 우울한 시기를 가장 큰 은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울로는 그러한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있는 현재의 질곡을 헤치고 하느님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평화의 날을 여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었고, 당시 이방인들의 주류를 이루던 회랍인들의 사고방식으로도 모든 지혜의 원천으로써 현세를 초월해서 자족하는 초월자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한 말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1고린 1,23).

실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꿈 같은 이상을 부르짖었던 몽상가의 어리석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 죽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한 애도의 차원이 아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전쟁터의 전령인 양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복음 전파에 나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장구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두운 골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던 (요한 20,19) 그들을 박차고 나가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사건은 그 이전의 예수의 역사를 모두 재해석하게 해주었습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의 말씀이 비로소 그 참뜻을 찾게 되고(요한 1,22), 예수의 부활을 정점으로 나자렛이라는 구체적 현실 안에서 활동했던 한 젊은이가 진정한 의미의 구세주로서, 현재를 초월한 구원자로서 자리매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예수의 고난은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예수의 부활 역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도 단순히 우리의 구세주께서 수난을 당하심을 기념하는 기념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단순히 이 시기는 수난의 시기이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재를 지키며 우울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상에 젖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과 정의를 창조하는 공동체로 변모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세상의 온갖 모순된 반생명, 불의, 반창조의 모습들을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 즉, 사랑과 생명의 문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 사순시기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새 창조의 작업은 비단 사순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걸쳐 항상 새롭게 투신하여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 제

모보일(즈가리아)

창문을 열면 아침 공기가 상큼하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차차 서쪽으로 기울고 일어불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니 풀과 나무들이 짙을 띄운다. 겨울새인 기러기, 오리, 고니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여름새가 날아온다. 곤충이 활동을 시작하고 냉이, 달래, 쑥, 고사리, 미나리, 죽순 등 햇나물과 조개류가 미각을 돋군다.

음력 1월이지만 양력으론 3월, 절기상으로 오늘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니 아직 꽃이 없고 새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봄은 왔다.

우리나라의 봄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겨울이 저만치 물러가면 대지가 기지개를 켜면서 온갖 아름다움을 토해 낸다. 높은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계곡을 맑은 물로 씻어내고 새들은 마냥 즐거움으로 재잘거린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국토가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모든 강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독성물질 톨루엔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공장폐수와 합부로 버린 쓰레기, 생활하수로 망친 것이다.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운동을 반체제운동으로 간주했던 유신시대와 5공을 거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지난달 28일에 막을 내린 제17회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자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 대회였다.

노르웨이 함메르 동계올림픽조직위의 '그린 앤드 화이트'(Green And White) 프로그램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이뤄낸 환경을림픽으로 전세계가 박수를 보냈다. 부러운 일이다.

자작나무, 전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 암반을 뚫고 동굴을 파 만든 3천여 평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아이스하키 경기장 가까이 세우려 했던 올림픽 홀도 철새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자 장소를 바꿀 정도로 자연보호에 신경을 썼다. 경기장 기둥도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우려, 나무 기둥으로 지붕을 떠받치도록 하는 등 대부분 목재를 사용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었다.

시내버스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를 사용했고 한 뼘의 땅이라도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기장에서 나온 탄환을 곧바로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

선수들에게 주는 매달은 돌로 만들어졌고 시상대는 얼음으로 조각됐다. 그릇과 포크는 옥수수가루와 감자가루를 압착해 만들어 이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도록 만들어졌다. 쓰레기를 줄이고 그대로 버려지더라도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철로주변으로 먹이를 찾아온 야생 사슴들에게 일정 구간에 사료를 놓아두고 헬기를 동원, 적외선 카메라로 추적보호하는 등 전국민의 동참으로 이룬 자연보호는 감동적이었다는 보도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는 8천억원을 투입했고 TV중계료 등 전체수입은 3천2백억원에 그쳐 4천8백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평가와 다음 올림픽 개최지 일본 나가노에 '릴레함메르의 정신을 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올림픽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광을 안았다.

우리도 97년 무주에서 동계U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의 젊은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국제행사다. 선수나 관객이 모두 즐겁고 편안한 대회가 되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야 겠지만 훼손된 경관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게 됐다.

3월은 봄을 여는 사계의 첫 계절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달이다.

사순절의 달 3월을 맞아 단식과 금육, 통회와 보속으로 부활을 맞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열릴 것으로 믿는다.

숲정이 산책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김 숙(마르타)/금암동 성당

아직 아침이 열리지 않은 새벽 쌀쌀한 공기가 가슴 속까지 파고든다. 새벽별인 듯 아침이 열리려는 하늘에 교회의 십자가가 높이 떠있다.

넘치는 부풀음으로 새벽 바람을 가르며 제단 앞에 꿇어 앉는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마다 이 말씀을 듣고 머리에 재를 엮지만 나만은 예외란 듯 달콤한 착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동안 나는 어떠한 십자가로 살아왔을까? 머리로 는 모두가 한형제라는 사실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 들이고 사랑하며 살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할 내가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선교다 봉사다 하면서 세상 속으로 가서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과연 내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고 있어서 이 평화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나’였을까?

사소한 일에도 단죄하고 거부하며 마음속에서 체치며 살고 있던 것은 아닐까?

어떠한 종류의 단죄에도 찬성할 수 없다고 고상하게

항거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없이 밀시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던 교만의 뿌리가 선연히 드러난다.

행위로 겸손을 위장하며 오히려 겸손한 행위 속에서, 선행 속에서 교만 자체를 겸손으로 탈바꿈하지는 않았던가?

“사랑하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라고 다짐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휘청거린다.

아무리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찌거기에 악마가 서식하는 것일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하신 말씀처럼 십자가 없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라면 이 사순시기를 맞아 우선 나를 챙겨야 되겠다.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던 세리처럼, 나는 티끌과 진토라고 고백하던 욱처럼 절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하여 살아 있는 날까지 서로 붙들어 주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머지않아 다가올 그 큰 길의 종점에 평화와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신자들의 소리

내 작은 십자가

김민주(아네스)/효자우전 성당

‘모래부터 시험인데……미사도 가야 하고, 어찌지?’

요즘 난 핑계를 앞세우고 성당에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 주위 친구들도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입시부담’ 때문인지 종교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성심여자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을 기르는데 더욱 적극적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친구들도 시험공부 하고 TV보고 친구와 영화보러 갈 시간은 있는데 성당 갈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진다고 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고해성사도 꼬박꼬박 보고 매일미사를 통해 통회와 보속을 하며 지금보다는 좀더 성실하게 사순절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설레임과 기쁨으로 예쁘게 부활 달걀을 만들던 그 마음가짐이 지금은 조금씩 사라져간다.

사순절과 함께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지난 해의 생활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책상이며 옷장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를 한다. 올해에는 아빠, 엄마께 말대꾸를 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성당에서는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해야겠다.

그런데 해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 계획은 얼마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태했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헌하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물론 입시라는 현실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위해 수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굳은 믿음을 청해야겠다. 예수님의 수난을 조금이나마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과 가정

청소년 그들을 누가

교황께서는 올해를 “가정의 해”로 정하시고 “인류의 평화는 가정으로부터”라는 주제의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가정은 평화를 창조하는 일꾼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은 그 본질상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이며 사회적인 기초 공동체인 동시에 하느님 나라가 먼저 실현되어야 할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가정의 꽃인 청소년들은 교회의 희망이며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 학교, 가정이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때로는 청소년 비행의 불려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교육은 뒷전이고 성적이 청소년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생각하고, 교육자는 인성교육에 역부족을 느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을 강조하는 직업인이 되었으며, 한심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온갖 퇴폐향락업소가 이들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냉대와 가정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고 그들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이나 무관심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줄 때 그들은 좌절의 삶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향해서 열심히 자아를 실현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부락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희망이 열매 맺도록 감싸주어야 합니다.

*** 가정의 꽃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도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 전 나는 학생



들로부터 진솔하게 적은 고민이나 희망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의 글을 읽고 죄 짓지 않는 교육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상담의 결과 이 학생은 성적으로 인하여 가정으로부터 관심 밖의 고아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학생은 자기 가정을 적대시 할 뿐 아니라 가정을 마치 도살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야말로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과잉보호를 받는 청소년들은 그늘진 집단에 휩싸여 자립심이 상실되어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결국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쾌락적이고 감상주의에 빠져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교구장께서는 “복음화는 가정 교회로부터”라는 주제로 94년 사목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신자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시간’을 가질 때만이 가정이 ‘작은교회’로서의 삶은 물론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아름답게 성장할 것임을 강조하셨음과 같이 그들에게

무전기 사용 · 5분 신속배달

동양 가스

렌지, 시설전문, 식당개업 상담

유재식(아브라함)

유재승(미카엘)

유재우(요셉)

☎ 211-1513 · 211-2564(주)

211-5462(야)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한국 최고의 유행수질

전주 송산 온천

최대의 시설, 신비의 모래찜

국장호(요셉)

유숙자(수산나)

☎ 88-0887, 88-088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방치하고 있는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부모·교육자 모두 함께 새로운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참된 용기를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세대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한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용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여러 사회적·가정적 요인들과 교육현실의 모순 때문에 기(氣)가 죽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존경쟁, 출세욕, 명예욕이라는 인간사회의 증폭적 현상 때문입니다. 신세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고 자력으로 헤어날 수도 없으며 방어할 능력도 없는 자기마비상태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참된 용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가치관이 없는 무기력과 함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갈등 속에 인생의 패배자로 밀려날 것입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매사에 적당히 넘기고 손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 속에서 현실착각(現實錯覺)에 빠져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의 이기심을 키워주는 요령난만(要領爛漫)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가정은 물론 교육자는 평생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청소년들에게 “패배를 생각지 말고 희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들에게 빛을

청소년들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만 하는 소극적인 사회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생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주역이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화살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길을 찾아가는 여행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 모색도 하고 때로는 방황과 고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위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청소년들에게 불투명한 앞길을 밝혀주는 빛의 의지력을 길러준다면 그들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꺾어버린 꽃은 아름답고 향기를 피워낼 수 없듯이 청소년들의 꿈이 결코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는 인생의 조연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칭찬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빛을 밝혀주는 마음, 하나된 마음, 변함없는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똑똑히 봅시다.

십자가의 길을!

요십이 (1071) 김병오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경리 2, 지원직역: 영세한지 5년 이상된 고졸이상 미혼여성으로 주산2급, 부기2급 자격증소지자 3. 제출서류: ①지원서(소정양식) - 교구청사무처에서 배부 ②본당주임신부 추천서 ③세례증명서 ④자격증 사본 ⑤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21통. 4. 지원서교부및 마감: 1994.3.7(월) - 3.12(토) 5. 지원서접수: 전주교구청 사무처(전화: 85-0041) 6. 선발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개별통보)

사무장 구할

천주교 삼천동 교회에서는 젊고 유능한 사무장을 구합니다. ·요구조건: 고졸이상, 병역필, 컴퓨터 운영능력 ·구비서류: 이력서 2통, 건전증명서, 운전면허증, 본당신부 추천서 1통 ·제출마감: 3월8일(화)까지 ·주소: 완산구 삼천동1가 306-2 본당신부 앞

자폐아(정서장애) 교육

- 대상: 10세 - 20세 3명
 - 숙식 제공, 월-토 오전
- 서서점(발비나)
☎ (0652) 231-8779

매일 주의 말씀 듣는 생활 공동연역 **입체 낭송 성경** KBS·MBC 성우 100여명 출연, 기획제작10년, 제작비5억,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필수품, 하루 한개 1개월(신약27권), 1년(신구약 3년) **손기영(안드레아)** ☎ (0681)32-3337

(주) 선우관광 해외여행, 여권·비자·유학, 신혼여행, 성지순례, 항공권 **이종길(요한)** **이희준(요한비안네)** 전주 상업은행 옆 ☎ (0652) 87-9797 (0653)855-4302

성서잡지 아픔의 우울 매일의 복음말씀을 알기 쉽게 묵상하도록 돕는 성서잡지 '아픔의 우울'이 나왔습니다. ·1권 1,000원, 1년 10,000원 ·정기구독 신청 ☎ 252-3398 **성바오로 서원**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카세트테이프·비디오 슬라이드·CD·성물 등 **중앙 성당 옆** ☎ (0652) 252-3398

뿌리를 찾아서 43

영등동 성당

— 말씀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 —



이리 지역 사회신앙의 산실인 신
홍동 새실부락에서 시작, 창인동 성
당에서 1981년에 영등동 성당 신축
위원회 구성과 대지 988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1983년 3월 성전 기공식과
함께 본당 후보성인을 성 손선지 베
드로 성인으로 모시고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많은 노력봉사로 1983년 12
월 13일 성전 축성식과 함께 창인동
본당에서 517명의 신자들과 영등동
천주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초
대 주임신부인 강덕행 신부님과 동정
성모회 수녀님들과 함께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6년 1월 제 2대 안복진 신부님

을 모시고 성당 조정공사와 애령회장
이병중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일천
만원을 봉헌하여 수녀원을 신축하는
계기로 도시 속에 아름다운 전원적인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게 되었다. 또
한 신자들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매
년 본당의 날 행사와 추수 감사제를
개최하였고, 이리·익산 지구 성체
현향대회를 주관 개최하여 성체에
대한 신심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신자
들의 성체 신심이 날로 발전하는 계
기가 되었다.

91년 1월 제 3대 서용복 신부님과
초대 보좌신부님을 모시게 되었으며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행동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자
리잡게 되었다. 또한 은총의 모친
꾸리아를 중심으로 32개 레지오팀은
찾아나서는 선교활동으로 93년 말
3500명의 신자로 성장 발전하여 1994
년 2월 15일 현재 신자 1137명의 신
자로 어양동 성당을 분리하게 되었
다.

10년이란 짧은 세월 속에 눈부신
발전을 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서용복 신부님을 중심
으로 올리는 “우리 가정은 작은 교
회”라는 실천 목표를 순교정신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명상의 자리

성 체(聖體)

어찌하여
누룩없는 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룩이 되라
하시는지요.
어찌하여
바로 죽음이신 채
우리에게 생명을 주마
하시는지요.
예수여,
누룩이 아닌 당신의 누룩은
죽음이신 채
생명이신 그 사랑



누룩없는 이 빵을 먹고
내가 누룩이 될 수 있는 것은
고통이신 채
사랑이신 당신 때문.
버림받으심으로써
구원하신 당신 때문.
분리되심으로써
일치시키신 당신 때문.
그리하여 오늘
이 빵을 먹으며 나는
당신으로 발효될
누룩이 됩니다.

커텐·조명·APT보조키·인테리어

전주 커텐

성연수(요셉)
이영이(테레사)

전주시 서완산동 완산주유소 앞
☎ (0652) 84-1729, 83-3545

신부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 미용실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부업·사업 희망 교우 환영 (주)웅진인삼 772지부

장패삼골드(허약체질, 숙취, 피로),
웅진부활(칼슘, 철분함유, 천연과즙농
축액, 빈혈, 변비, 아기가이유식), 타히
보차, 로얄톤, 스쿠알렌

탁경희(올리안나)

☎ 231-4662~3

물 걱정의 시대 까까한 정수기 웅진코웨이

무자본으로 정수기 사업하실 분
상담, 설치 문의

유병필(바오로)

오은순(엘리사벳)

☎ (0653) 856-1148

호출기 012-688-2040

교 소 식

- ❖ **축! 건진**
 - 때: 3월12일(토) 오후3시
 - 곳: 화산동 성당
 - 때: 3월13일(일) 오전10시30분
 - 곳: 덕진 성당
- ❖ **천호 피정 안내**
 - 때: 3월8일(화)
 - 주제: 고통이라고 하는 은총
 - 감사: 권이복 신부
 - 문의: (0652)73-6600
- ❖ **공소 지도자(회장단) 연수**
 - 때: 3월9일-10일
 - 곳: 천호 피정의 집
- ❖ **교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연수**
 - 때: 3월12일-13일 오전9시30분
 - 곳: 나바위 피정의 집
 - 집결지: 가톨릭센터 별관 2층 교육국
- ❖ **에비 신학생 모임**
 - 때: 3월13일(일) 오후2시
 - 곳: 가톨릭센터
- ❖ **사랑의 다리 율레미사**
 - 때: 3월7일(월) 오전10시30분
 - 곳: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성직자 묘지미사**
 - 때: 매월 둘째주 토요일
 - 오전10시30분
 - 주례: 김교동 신부
- ❖ **제1차 평협 회원 연수**
 - 때: 3월12일-13일
 - 곳: 천호 피정의 집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3월21일(월) 오후3시
 - 곳: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죽음과 부활
 - 내용: 인간실존의 엄연한 현실이면서
 - 수도 살아 있는 이들에게 낯선 죽음
 - 이라는 주제를 그리스도적인 관점에
 - 서 조명한 작품으로 바른 죽음의 길
 - 즉, 죽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형
 - 성할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정립된
 -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회비: 1,000원

성소모임

- ❖ **샬트르 성바로 수녀회**
 - 때: 3월13일 오후2시
 - 곳: 창인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653)842-4132

-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3월13일 오후2시
 - 곳: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652)84-2276
- ❖ **동정성모회**
 - 때: 수시로 성소 상담
 - 문의: (0652)222-5269
- ❖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 때: 수시로 성소 상담
 - 곳: 서학동 성당 수녀원
 - 문의: (062)529-0041
- ❖ **심가소비녀회**
 - 때: 수시로 성소 상담
 - 문의: (0652)223-2822

■ 권해드리는 책 ■

· 십자가 바라보며
 폴턴신 지음/박도식 옮김
 성바로출판사/1800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십자가를 향해서 던진 그 당시 사람들
 의 말을 통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신앙의 진기한 뜻을 열어 보인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생활 소음공해

소음이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에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리다. 소음은 난청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생리적 악
 영향을 끼쳐 혈압 상승, 심장고동의 증
 가와 근육수축 등을 가져온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 진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생활소음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좁은 구역에 많은 사람이 밀
 집해 살기 때문에 심야의 전축소리와

같은 생활소음 문제가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소음은
 이웃을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음악감상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거나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가전
 제품을 살 때에는 성능뿐만 아니라 소
 음이 작게 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이
 윗과 더불어 사는 지혜일 것이다.

작품 전시회

성전 건립을 위하여 본당 교우들이
 정성을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
 려를 바랍니다.
 · 때: 3월18일(금)-24일(목)
 · 곳: 전북 예술회관
 · 작품: 동양화, 서양화, 서예, 사진
 평화동 천주교회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성소자 모임

· 때: 3.13(일) 오전10시-오후4시
 · 곳: 서울 장충동 분원
 · 문의: ☎(0334) 74-1251~2
 · 대상: 수사신부, 수사 지망 학생
 또는 일반인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영은 피아노 교실

완전한 개인지도,
 실기·이론의 예능 교양교육
 근교 차량 운행, 모음이 환영
 이호은(베로니카)
 동산동 우석중학교 정문 앞
 ☎ 212-0148

커텐장식·혼수이불·홈패션

천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대원(프란치스코)
 박혜순(헬레나)
 순정이 성당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할티생수

청주교구 미원성당 샘물
 김일수(요셉)
 소화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군산(0654)465-689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부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사순 제3주일(교무금 및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
 1. 세실리아회 회장 경질: 최선자(쁘리나)→진경숙(요안나) 2. 여성연합회 주관 피정: 10일 전 9시30분~후 4시, 강사-김동준 신부님, 여성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바람. 3. 구역별 부활성가 발표회: 4월3일 장엄미사 후, 지정곡: 부활성가(128장~141장) 자유곡-교회공인성가. 4. 사순절 사랑의 성금: 30만원, 누계-30만원. 5.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8일 어머니 미사 후) ③장우회(13일 장엄미사 후) ④꾸리아(13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6. 금주 청소: 인후9, 10만. 차주 청소: 인후11, 동진1만.
 □ 지난주 봉헌금: 1,018,810원 □ 교무금: 1,58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3월은 성요셉 성월
 1.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울뜨레아: 8일 저녁미사 후. 4. 구역분과: 8일 10시.
 5. 안나회: 10일 오전 10시. 6. 여성분과: 12일 오전 10시.
 7. 요셉회: 13일 공식미사 후. 8. 꾸리아: 13일 오후 2시.
 9. 청년회: 13일 저녁미사 후.
 10. 사순절 성서 특강: 강사-정태현 부부, 시간-금요일 오후 7시 30~9시.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오경의 부부
 봉헌-김연길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현경, 독서-유단수 부부
 봉헌-이현기 가족

*** 삼천동** 주임신부 김진룡
 사목회장

1. 미사 안내: ①주일-오전 6시, 10시, 오후 7시30분 ②평일-월, 수(오전 6시), 화, 목(오후 7시30분) 금(오전 10시30분) 토(오후 7시30분-특전) 2. 감사합니다: ①효자동 김치삼 신부님과 사목회 임원 방문(격려금 1,000만원 전달) ②성당 올겐 기증해 주신 분. 3. 가정방문: 8(화)-우성, 9(수)-광진, 10(목)-주철, 11(금)-오성. 4. 구역, 반, 제단체, 신심단체 신임을 3월 5일까지 등록 요망.
 □ 지난주 봉헌금: 655,810원 □ 교무금: 50,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부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두태

◎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 환영: 율올리바 수녀님.
 1.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자모회-12일(토) 저녁.
 2.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3. 사순절 가정 방문: 9일(수) 오전-외어두리, 오후-내어두리, 10일(목) 오전-묘동, 오후-원의암. 11일(금) 오전-신흥리, 오후-수월리.
 4. 견진성사: 20일(주일) 오전 10시30분 13세 이상, 사무실에 접수.
 5. 사순절 성령 피정 및 견진 교리: 14일(월)~16일(수) 저녁 7시 30분.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사순 제3주일!
 1. 꾸리아: 3월6일(오늘) 오후 2시.
 2. 사목회: 3월8일(화) 오후 8시30분.
 3. 울뜨레아: 3월9일(수) 오후 8시.
 4. 성심회: 3월8일(화) 오전 10시30분.
 5. 94년 봄 판공 일정: 3월9일(수) 4, 5, 6, 7, 8반. 3월10일(목) 1, 2, 3반(10시 미사 후) 저녁-우정, 25반, 대야청산반(우정아파트) 3월15일(화) 9, 11, 12, 13반. 3월16일(수) 10, 14, 15, 16반. 3월17일(목) 17반, 18반, 19반(미사 후) 26반, 27반(교역아파트)
 금주 전례: 김종호, 독서-송병운, 안효순. 차주 전례: 이동재, 독서-박유근, 전진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부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사순 제3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
 2.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
 3. 3월11일: 구역반장 모임.

4. 사순절 꽃태지: 잘 크고 있는지요?
 5. 성전 건립 기금: 신청하셨나요?
 6.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모읍시다.
 7. 청소 봉사: 4구역1, 2, 3반.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사순 제3주일-3월은 성요셉 성월.
 1. 금주: ①성소후원회회비 납부 주일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여성45차 환영회 ③계속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3. 든보스교회: 9일(수) 오후 7시30분. 4. 성심유치원 입학식: 11일(금) 오전 10시30분. 5. 꼬미시를 신하 간부 교육: 12일(토) 오후 2시. 6. 유아세례: 12일 오후 3시-대상 가정은 미리 접수바람. 7. 불우 이웃돕기 열일맞춤: 12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성남다방, 주부: 사회복지분과. 8.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9. 감사합니다: 성가대 단복(일백사십만원)-전선미 꽃집, 빔덕배(디도) 10. 초·중·고 부활 판공성사: 초등부(6일 3시 미사 전후), 중·고등부(13일 5시미사 전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부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우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삼근

1. 성전 건축을 위한 작품 전시회: 3월18일-24일, 예술회관.
 2. 노동동 학사님 시종직 수여식: 6일 11시, 축하합니다.
 3. 사목회: 10일 후 8시, 사제관, 부서장 개편 임원 환영식.
 4. 반미사: 8일 2-2 전 10시, 2-3 후 3시, 7-1 후 8시, 10일 1-12 전 10시, 1-3 후 3시, 11일 1-4 전 10시, 9-5 후 8시.
 5. 교도소 판공성사: 9일 후 1시~3시.
 6. 공소 회장단 연수: 9일-10일 천호 피정의 집.
 7. 교사 레크레이션 연수: 12일-13일 나바위 전 9:30. 센터 홀
 8. 회의: 한빛회-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빈켄스 오후, 자모회-9일. 제대회-11일, 후 3시. 성체회-13일 공식미사 후. 청년 성가대-13일 저녁미사 후.
 9. 성미주머니와 저금통: 매일 매일 정성을 담읍시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부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사목회장 한병길

◎ 수녀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김숙희(마리아), 김점미(세레니) 수녀님
 1. 꾸리아: 오늘 낮미사 후. 2. 사목회: 오후 8시30분.
 3. 구원기도: 6일부터-화산1, 서원.
 4. 자모회: 9일(수) 오전 11시30분. 5. 대건회: 10일(목) 오후 8시 30분.
 ※ 축! 전진: 12일(토) 오후 3시.
 6. 성모회: 다음 주일 미사 후.
 7. 기족미사: 금주-그린. 차주-은하.
 금주 전례: 김정숙, 손금규, 독서-봉헌-그린.
 차주 전례: 최정순, 정준성, 독서-봉헌-은하.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부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송영진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1. 안나회: 오늘 11시 미사 후 교육관. 2. 성모회: 9일(수) 오전 11시. 3. 울뜨레아: 13일(일) 저녁미사 후 교육관. 4. 자모회: 15일(화) 오전 11시. 5. 예비자 교리시간: 일요일-9시30분, 수요일-오후 8시, 목요일-오전 10시, 금요일-오전 10시, 토요일-오후 6시(학생반)(3월중 계속 모집 하오니 예비자 인도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식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있으나 열심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 아치에스 행사: 3월13일(일) 오후 2시. 레지오 전단원 복장-여(한복), 남(정장)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부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모임 안내: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성소후원회비 접수(미사 전후) ③구역분과회: 10일(목) 10시미사 후 ④자모, 성모, 성심회-11일(금) 10시미사 후.
 2. 세대별 신자분은 출자금과 주민등록증 인장 지참하여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동의를 첨부바람)
 3. 3월 본당청소팀: 월요일-성인들의 모후, 토요일-신비로운 장미. 차주 모임: 울뜨레아, 기우회.